

국민 1인당 연간 휴대폰 구매비용 65만원에 달해

4인가구 기준 매월 10만9545원 비용 지출

국민 1인당 휴대폰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용(할부수수료 포함)이 약 65만원(24개월 할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9년간 이통3사가 할부 판매한 휴대폰화 단말기 평균가격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단말기 평균가격(61만5918원)에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3만8591원)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국민 1인당 단말기 구매비용은 65만원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4개월 기준 국민 1인당 월 평균 단말기 구입비용은 2만7386원으로 조사됐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매월 10만9545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스마트폰 도입시기인 2009년 약 44만원에 불과했던 단말기 가격(할부수수료 미포함)은, 2017년 현재 약 61만원으로 2009년 대비 약 3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인당 휴대폰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 통계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다. 이통3사 할부신용보험 가입금액 총액(할부원금) 및 보험 가입자 수를 통해 단말기 가격 규모가 공식통계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고가단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단말기 자체를 활성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분리공시 도입 및 단말기 가격에 숨어있는 제조사의 리베이트 판매 장려금)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가을 패션을 완성시켜줄 완소 아이템 구매하세요”

광주신세계, 내일부터 15일까지 구두·핸드백 대전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 6층 '칸골' 매장에서 펠트, 뱀뱀, 모직 등의 소재로 제작된 베레모, 페도라(중절모) 등 다양한 패션 스타일에 맞춰 골라 쓰는 아이템인 가을 모자를 선보였다. 가격대는 59,000원~99,000원으로 다양하다.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 1층 이벤트 홀에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유명 구두 및 핸드백 대전과 패션 페스티벌이 동시에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차츰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에 코디하기 좋은 핸드백, 구두, 청바지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

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대표적인 구두 브랜드인 텐디, 소다, 미소페가 최대 60% 할인된 가격(일부 기획 상품은 제외)으로 상품을 선보인다. 8만~20만원 대로 선보이는 일반화, 구두, 앵클 부츠는 남녀노소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구두와 함께 이번 특집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인기 핸드백 브랜드인 닥스, 빈폴과 더불어 차별화된 소재와 컬러에 실용성을 가미한 타파, 볼트렐리와 같은 디자이너 핸드백 브랜드도 참여한다. 최대 40% 할인된 가격인 10만원 대의 핸드백부터 40만원 대에 이르는 핸드백을 통해 가을 여심을 저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대 30% 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3만~20만원 대의 지갑 역시 이번 특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의 유명 구두/핸드백 대전과 함께 진행되는 '진 페스티벌' 역시 놓칠 수 없다.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게스진, 리바이스진, 캄빈클라인진, 플렉진 등 7개의 인기 청바지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가을에 코디하기 쉬운 무채색 컬러 위주의 상품 구성을 통해 멋과 트렌디한 요소를 동시에 선보일 계획이다. 청바지의 가격은 5만원에서 20만원 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광주신세계 최영민 집화 팀장은 "이번 행사는 가을 패션으로 고민 중인 소비자들의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라고 밝혔다.

LG 올레드 TV, 전 세계 11개국서 성능평가 1위 ‘썩썩이’

미국·영국·독일 등 비영리 소비자 매거진 평가



를 받지 않는다.

운영비는 회비와 독자 기부, 잡지 판매 수입 등으로만 충당하고 성능을 평가할 제품도 제조사로부터 받지 않고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다. 이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평을 받는다.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정부 관계자, 소비자 등이 평가에 참여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에 대해 신랄한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지난 5월 65형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에 TV 평가 부문 역대 최고점인 89점을 부여한 바 있다.

LG전자는 LG 올레드 TV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배경으로 ▲자발광을 바탕으로 한 차원이 다른 화질 ▲돌비시(社)의 '돌비아트모스(Dolby AtmosTM)' 기술을 적용한 입체적인 사운드 ▲초슬림 디자인 ▲사용 편의성 ▲직관적인 스마트 TV 기능 등을 꼽았다.

올레드 TV는 LCD TV와는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 완벽한 블랙 색상을 표현한다. 블랙 표현이 뛰어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대비를 극대화해 선명한 화질을 만든다.

LG전자는 LG 올레드 TV가 비영리 소비자 매거진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성능평가를 휩쓴 유럽에서 올레드 TV가 프리미엄 시장(2500달러 이상) 점유율은 38.7%로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올레드 TV로 돌풍을 일으키자 경쟁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잇따르면서 올레드 TV는 프리미엄 시장의 대세가 됐다.

올해 2분기에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2500달러 이상)에서 올레드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하며 LCD TV를 완파에서 밀어냈다.

LG전자 관계자는 "2년전 15%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성장세"라며 "2분기 선진 시장인 유럽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올레드 TV 비중이 무려 7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LG전자의 프리미엄 TV인 'LG 올레드 TV'가 세계 각지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LG전자에 따르면 올레드 TV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주요 9개국과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11개 선진 시장 소비자 매거진이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 1위를 썩썩했다.

LG전자에 따르면 비영리 소비자 매거진은 성능 평가 결과를 기업들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기업 광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 '위지는 LG 올레드 TV에 대해 "최근 몇 년간 테스트한 TV 중 최고이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화질과 음질을 갖췄다"고 극찬하며 '베스트 바이(Best Buy)'에도 선정했다.

이탈리아 '알트로콘수모'는 LG 올레드 TV를 "고화질 평가에서 훌륭한 결과를 나타냈고 4K 영화 화질도 뛰어났다"고 호평했다. 또 "오디오 역시 맑고 풍부하며 파워풀한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 “83만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 25일에서 31일까지 연장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83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79만명)때보다 4만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은 고지서에 적힌 예정 고지세액을 31

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에 발송됨에 따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25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다.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한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뉴스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이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